

10명으로 싸운 전북, 30경기 무패 행진

수원전 서로 1명씩 퇴장…1-1 무승부
애매모호한 판정, 양팀 모두 거센 반발



전북현대의 무패 행진이 30경기로 늘어났다.

전북은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0라운드 홈경기에서 1-1로 비겼다. 17승13무(승점 64)가 된 전북은 같은 날 제주 유나이티드와 안방에서 득점 없이 비긴 2위 FC서울(15승6무10패·승점 51)과의 격차도 그대로 유지했다.

13일 상하이 상강(중국)과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5-0 승)을 치른 후유증이였을까.

프로축구 경기 결과 ▶ 17·18일				
탄천	성남	2 : 1	수원 FC	
광양	전남	2 : 0	광주	
상암	서울	0 : 0	제주	
인천	인천	0 : 0	상주	
전주	전북	1 : 1	수원 삼성	
울산	울산	1 : 0	포항	

전북의 몸놀림은 무거웠다. 하위권에서 벗어나려던 수원의 투지 또한 전북의 발목을 잡았다. 광희주, 이정수 등 베테랑 중앙수비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수원은 이날 쓰리백 수비진을 가동했다. '선 수비-후역습' 전략을 바탕으로 전북의 공격 전개를 잘 차단한 수원은 전반 44분 조나탄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

다. 후반 6분에는 전북 중앙수비수 조성환이 경고누적으로 퇴장 당했다.

전북 벤치로선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신형민을 투입해 어수선한 중원에 힘을 실는 한편 김진욱-에두의 투톱 조합을 김신욱-이동국으로 바꿨다. 이 선택이 적중했다. 전북은 후반 28분 레오나르도의 프리킥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한 수원이 허물어졌다. 후반 32분에는 수원 이종성이 퇴장 당해 10대10 상황이 됐다. 전북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 골은 나오지 않았다. 다시 역습 패턴으로 전환한 수원은 온몸을 날려가며 승점 1을 지켜냈다.

누구도 웃을 수 없는 결과였다.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양 팀 사령관들의 표정에서도 불편함이 묻어나왔다. 특히

매고럽지 않았던 판정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표출됐다. 수원 서정원 감독은 "잘 풀리던 경기였는데 아쉽게 퇴장이 나왔다. 예전에도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고, 전북 최강희 감독은 "지치고 힘들다. 선수들에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휘슬을 잡은 이동준 주심은 빅매치에 어울리지 않는 애매모호한 판정으로 일관해 양 팀 모두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한편 울산현대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동해안 дер비' 홈경기에서 후반 33분 팬디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고, 잔디 문제로 인천으로 옮겨 경기를 치른 상주상무와 인천 유나이티드는 0-0로 비겼다.

전주 |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전북현대 한교원(왼쪽)과 수원삼성 구자룡이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K리그 클래식 30라운드 경기 도중 눈앞에 공을 두고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 팀은 1-1로 비겼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가 잔디 때문에 취소되다니...

사커 토크

상주상무 홈경기 잔디문제 당일 취소
폭염에 썩어버린 잔디보식 능자 원인

시의 경기장 시설관리 신속 대응 한계
구단으로 경기장 운영주체 전환 필요

K리그 경기가 잔디 문제로 당일 취소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4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리기로 했던 상주상무-인천 유나이티드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0라운드 경기가 18일 오후 6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미뤄졌다. 이는 현장에 파견된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감독관이 최악의 그라운드 사정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내린 긴급 조치다.

역대 K리그 경기가 당일 취소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1999년 8월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치르기로 한 성남일화(현 성남FC)-포항 스틸러스전은 조명탑 고장, 2006년 7월 포항 스틸야드에서 펼쳐질 예정이던 포항-제주 유나이티드전은 건설노조의 파업에 따른 경기장 출입구 봉쇄로 인해 취소됐다. 부실한 잔디 관리가 원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상주상무-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 클래식 30라운드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부실한 잔디 상태 때문에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이 경기는 18일 아예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옮겨서 치러졌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추석연휴 말미 명절특수 관중몰이를 기대했던 상주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뚫고 16일부터 1박2일의 원정 스케줄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안방으로 돌아가게 된 인천도 모두 피해자가 됐다. 상주는 프로축구연맹 차원의 징계와 벌도로 인천 선수단의 원정 비용까지 물어주게 됐고, 시즌 막바지 강등권 싸움에 사활을 건 인천은 급작같은 시간을 고속도로서 허비하면서 선수단 컨디션 관리에 악영향을 받았다.

모두를 울린 사태의 발단은 간단했다. 상주시민운동장의 잔디보식공사가 기한을 맞추지 못한 탓이었다. 올 여름은 유독 혹독했다. 역대급의 엄청난 폭염과 높은 습도가 한반도를 덮쳤다. 월

드컵경기장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축구경기장은 사계절 잔디로 그라운드가 조성돼 있는데, 무더위에 유난히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병충해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잎이 누렇게 변색된 것은 물론 뿌리까지 썩어버리는 상황이 태반이다.

당연히 상주를 비롯한 각 구단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시즌 종료 후 잔디 교체에 나선다는 계획과는 별개로 당장이 문제였다. 수시로 그라운드를 점검하고 대형 선풍기를 틀어보는 등 애를 썼으나 역부족이었다. 죽어버린 일부 잔디를 들어내고 새로운 잔디를 보식했어도,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열기설기 이뤄진 팽집 자국은 '축구 보

는 재미'를 반감시키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행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경기장 운영주체가 구단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상주의 경우에도 경기장 시설관리 및 보수는 상주시가 맡고 있다. 잔디보식을 담당할 업체가 공기를 맞추지 못해 이번 사태가 빚어졌으나, 상주 구단은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꿀 먹은 벼어리' 신세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경기장 장기임대에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부는 최근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25년에서 50년까지 경기장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쳤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려면 문제점들이 줄비한 실정이다. 시설보수와 개선 등에 대한 주체를 담당 어디로 해야 할지가 고민거리다.

K리그의 한 구단 관계자는 18일 "사무국 역할의 범위가 넓지 않다. 홈구장을 홈구장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다.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라운드 관리도 할 수 없다. (지자체에) 잔디보식을 건의해도 답변을 받으려면 길고 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각적 대처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남창현 기자

김병지 “다시 돌아간다면 드리블은 자제”

울산-포항전 이벤트 펼치며 은퇴식
해설위원·축구아카데미 활동 예고

한국축구의 한 시절을 상징하는 골키퍼 김병지(46)가 18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벌어진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0라운드 울산현대-포항 스틸러스전에서 은퇴식을 치르고 공식적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울산 선수들은 김병지의 은퇴식을 기념하는 티셔츠를 입고 경기장에 입장했다. 이어 경기장에 들어선 김병지는 아들(태배)이 차는 승부차기를 막는 특별 이벤트를 펼쳤다. 은퇴식이 진행된 하프타임에는 경기장 전체를 돌며 팬들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이어 아들이 크로스한 볼을 헤딩슛으로 마무리하며 '골 넣는 골키퍼' 퍼포먼스도 연출했다.

김병지는 1992년 울산에서 K리그에 데뷔해 2015년까지 개인통산 24시즌 706경기 754실점을 기록했다. K리그 역대 최다출전 기록을 남긴 그는 골키퍼로는 드물게 개인통산 3골을 넣기도 했다. 울산 소속으로는 2000년까지 9시즌 동안 223경기에 나섰고, 포항으로 이적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164경기를 뛰었다. 이후 FC서울~경남 FC~전남 드래곤즈를 거쳐 올해 선수생활을 마쳤다. 김병지는 선수생활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다져왔지만, 지난 여름이적시장까지도 새 동지를 찾지 못해 결국 골키퍼 장갑을 벗게 됐다.

김병지는 "후보선수였던 나는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값진 경험을 했고, 꿈을 위한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다. 돌아보면 아쉬움마저도 고맙고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열 살에 축구를 시작해 청춘을 다 바쳤다. 보람됐고, 값진 시간이었다. 특



골키퍼 김병지가 18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0라운드 울산현대-포항 스틸러스전에서 은퇴식을 치렀다. 그는 "열 살에 축구를 시작해 청춘을 다 바쳤다. 보람됐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오랜 선수생활을 되돌아봤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히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였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그에게는 아픈 시간이었던 2002한·일월드컵에 대해선 "평가전 도중 내가 봐도 드리블이 과했다. 히딩크 감독과 배여백 코치가 쓰러졌다. 다시 돌아간다면 드리블을 자제하려나도 플레이 스타일은 유지할 것"이라고 회고했다.

김병지는 이미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TV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후배 선수들의 기량 발전에 도움이 되는 축구아카데미 개설도 앞두고 있다. 또 자신처럼 골키퍼를 꿈꾸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받았던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계획이다. 그는 "‘굿바이’다.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데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질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격려해달라. 난 첫 발을 내디딜 때 정말 부족한 선수였는데, 지도자와 동료들의 질책과 격려 덕에 이 자리까지 왔다. 앞으로도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울산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서울 잡는’ 전북 vs ‘전북 잡는’ 황선홍

ACL 4강…전북 올시즌 서울에 3전승
황 감독, 2014년 ACL 전북 제압 경험



전북 최강희 감독 서울 황선홍 감독

‘아시아판 K리그 더비’가 성사됐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을 대표하는 명가 전북현대와 FC서울이 각각 상하이 상강과 산둥 루닝(이상 중국)을 제물 삼아 2016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4강행 티켓을 거머쥐면서 ‘곰의 매치업’이 완성됐다. 전북과 서울은 대회 결승 진출을 놓고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1차전, 다음달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차전을 치른다.

AFC는 유럽리그처럼 대부분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2013년부터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K리그를 대표하는 두 팀 중 한 팀은 무조건 결승에 올 수 있게 된 만큼, 국내 축구계는 모처럼 활짝 웃을 수 있게 됐다. 대부분의 구단이 뼈대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도 꾸준한 마케팅 활동과 적극적 투자를 단행해온 전북과 서울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은 당연하면서도 더 없이 반갑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축구인은 "두 팀은 한국프로축구의 자존심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전력을 유지해야 통란할 수 있다는 프로스포츠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흐트한 일이다"며 반가워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일장 일단이 있다. 비자발급 등 절차도 복잡한 데다 온갖 불합리한 요구와 비협조로 유명한 중국 원정을 피한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민약'이라는 최악의 시나

리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결승 문턱에서 좌절하면, 그것도 K리그 클럽에 발목을 잡으면 엄청난 후유증에 빠질 수 있다. 시즌 막바지 계획도 전부 꼬일 수 있다는 현실적 격정과 불안이 엄연히 존재한다.

전북과 서울의 관계 또한 미묘하다. 우선 전북은 서울을 잡을 줄 안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도 전북은 서울에 3전승을 거뒀다. 그러나 서울 황선홍 감독은 과거 전북에 무척 강했다. 포항 스틸러스를 이끌던 2014년 5월이 압권이다. 당시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포항은 전북과의 1·2차전을 모두 승리하며 8강에 올랐다. 2013년 FA컵 결승에서도 전북을 꺾었다. 다만 황 감독은 올 여름 서울 지휘봉을 잡은 뒤로는 전북에 2전패를 당했다.

그때도 서로 좋은 부분만 생각하려고 한다. 전북 최강희 감독은 "(황 감독에게) 과거 전적은 밀렸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내가) 국가대표팀을 맡다가 전북에 복귀한 뒤 팀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다. 황 감독 체제로 전환한 현재 서울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서울 관계자도 "국내에선 (전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토너먼트는 또 다르다. 나쁜 기억을 굳이 떠올릴 필요는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주 | 남창현 기자

맨체스터시티, 본머스 꺾고 개막 5연승
맨체스터시티가 17일(한국시간)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16~2017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두고 개막 5연승(승점 15)을 질주했다. 올 시즌 5전승을 기록 중인 팀은 맨체스터 시티뿐이다. 맨체스터시티는 전반 15분

케빈 데 브루잉의 프리킥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뒤 전반 25분 켈레치 이헤아나초의 추가골로 2-0으로 앞선 가운데 하프타임을 맞았다. 아스널도 웬시티를 4-1로 완파하고 3승1무1패(승점 10)를 기록했다. 디펜딩 챔피언 레스터시티는 번리를 3-0으로 제압했다.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